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의 구조와 운용 연구

김 현 수*

목 차

요약
1. 서론
2. 현대사회와 사회교육시스템
2.1 사회교육시스템 분석 개요
2.2 현대사회의 특성과 함의
2.3 현대사회교육의 문제 분석
3.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 요건
3.1 문제해결 필요조건
3.2 세상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
3.3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의 공리
4.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 구조와 운용 모델
4.1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 구조
4.2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 운용모델
4.3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 구현방안
5. 토의 및 과제
References
Abstract

요약

본 연구는 인류사회의 행복도와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사회교육시스템 개선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사상적 모델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교육시스템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상호 배려하는 사회, 개인이 행복한 사회 등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일 것이다. 또한 계층이동성이 높으며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일 것이다. 현재 대다수 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지속가능사회 관점에서 개선 모델을 도출하였다. 자유의 대가와 평등의 대가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시스템을 논의하였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과도한 경쟁시스템의 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수직적 사회구조화 촉진 문제를 논의하였다. 사회적연대와 계층이동성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해결 대안으로 서비스주의를 도출하였다. 서비스주의는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사회관, 역사관, 인간관을 토대로 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규범이라는 두 대립자가 대칭균형을 이루는 시스템, 상승경쟁과 사회적연대가 대칭을 이루고,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서비스주의는 동태적 균형모델이다. 즉 시간과 공간 차원이 개입된다. 특정 시기 또는 특정 공간에서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우세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이 변해감에 따라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철저한 균형을 유지해가는 모델이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이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이다. 중도와 절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며,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향후 본 모델을 실용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표제어: 서비스주의, 정의사회, 공정사회, 사회이동성, 서비스철학, 교육시스템

접수일(2021년 6월 24일), 수정일(1차:2021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6일)
* 국민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hskim@kookmin.ac.kr

1. 서론

인류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사회교육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로서의 사회는 안정적으로 발전해야하고, 사회속의 개인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인 경제시스템 연구와 정치행정시스템 연구에 이어 사회교육시스템 개선에 대한 연구다. 인류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사상적 모델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교육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상호 배려하는 사회, 개인이 행복한 사회 등이 지속가능한 사회일 것이다. 또한 계층이동성이 적정하게 높으며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일 것이다. 현재 대다수 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지속가능사회 관점에서 개선 모델을 도출하였다. 자유의 대가와 평등의 대가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시스템을 논의하였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과도한 경쟁시스템의 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수직적 사회구조화 촉진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사회적연대와 계층이동성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해결 대안으로 서비스주의를 도출하였다. 서비스주의는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사회관, 역사관, 인간관을 토대로 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규범이라는 두 대립자가 대칭균형을 이루는 시스템, 개인들의 상승경쟁과 공동체의 사회적연대가 대칭을 이루고,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 서비스주의하의 사회교육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주의는 동태적 균형모델이다. 즉 시간과 공간이 개입되는 모델이다. 특정 시기 또는 특정 공간에서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우세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이 변해감에 따라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철저한 균형을 유지해가는 모델이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이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이다. 중도와 절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며,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제 2 장에서는 현대사회의 중심 시스템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등을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통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제 3 장에서는 보다 나은 인류사회를 위한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의 공리를 제시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새 시스템은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으로 명명되었으며, 구현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제 5 장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토의를 수행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하였다.

2. 현대사회와 사회교육시스템

2.1 사회교육시스템 분석 개요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은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류사회의 이상에 부합해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안정적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의 도출은 아래 그림 <Fig.2-1>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수행되었다. 우선 인류사회의 기존 사회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계층화된 수직사회 문제, 계층이동성이 낮아지고 있는 현대사회 문제, 자본주의로 인한 과도한 경쟁의 문제, 가치관 혼란의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대 및 미래사회의 본질과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였다. 유형성이 아닌 무형성이 중심이 된 시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 등 시대적 특징을 분석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므로, 인류사회와 세계의 공통원리를 분석하여 시스템 디자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도출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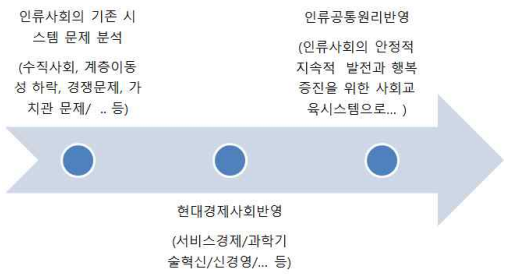

Fig.2-1. A Process of Constructing a New Society Framework

본 연구에서는 사회를 '소속 개인들이 행복한 연대한 집단' 이라고 정의한다. 사회학을 연대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한 에밀 뒤르깽(1858-1917)의 관점을 사용하고(Skirbekk and Gilje, 2016), 개인이 중심이 된 현대의 정신을 반영하여 정의하였다. 개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연대의 의미가 약하고, 개인이 일시적으로 행복해도 연대가 약해지면 사회는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과 강한 연대' 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스템을 사회시스템과 함께 논의한다. 교육시스템은 사회시스템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영유아 육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전체 교육이 연구대상이다. 사회의 연대 조건은 경제와 정치 조건들을 포함한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차별이 적은 것이 연대의 필요조건이고 정치적으로 자유가 있는 것이 사회에 대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경제시스템으로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 정치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문제가 본 연구에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재조명된다.

분석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사회교육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위해 현재 사회교육시스템의 핵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 현대사회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함의를 분석한다.

2.2 현대사회의 특성과 함의

프랑스혁명이후 강조된 자유와 평등이 현대사회의 사상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더 자유로운 사회, 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지향성이다. 또한 더 안전한 사회, 더 연대가 강한 사회, 더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회의 공통 지향점이다.

현대의 세계관은 '세상은 모두가 여러 차원에서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이고, 접속과 단절이 자유로운 곳' 이라는 것이다(Kim, 2020c). 현대의 사상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초 연결 사회와 잘 부합하고 있다. 이런 세계에서 늘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이므로, 현대 경제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상과 현대경제사회의 동태성과 현대인의 노마드(nomad)적 삶을 고려한 현대사회의 전개 방향은 인간중심, 나 중심, 자유 중심을 더욱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경제와 정치의 중심시스템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시스템의 문제를 사회가 안고가고 있다. 즉 자유와 욕망의 과도한 분출로 인한 문제, 이기심과 행운의 과도한 분출로 인한 문제, 대의제 정치의 복잡성으로 인한 정치 참여 소외의 문제, 행정과 법제도의 복잡비대화로 인한 관료 중심사회의 문제, 자본주의와 결합된 민주주의에서 강화되는

자본의 권력화 문제, 정치행정 권력과 자본권력의 집단결합문제 등을 현대 사회가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Kim, 2021a; Kim, 2021b).

또한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연결사회가 특징이다. 최근에는 초고속인터넷과 사물인터넷(IoT)의 발달로 초연결사회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초지능사회로 가고 있다. 지식보편화시대가 되었다.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다. 근대 이후 인간 위주의 세계가 전개되면서 자연세계와의 균형이 깨지고 있어 인간세계에 자연으로부터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물론이고 전염병과 바이러스의 빈번한 출몰로 인류사회 전체가 위기를 겪는 빈도가 높아졌다. 사람간 전파력이 점점 강해지는 바이러스의 출몰(코로나바이러스 등)로 인류사회가 이동과 접촉을 제한받는 상황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 간의 불일치가 심한 사회이며, 하부구조의 요소들 간의 불일치, 상부구조 요소들 간의 불일치도 심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즉 상부구조인 현대의 사상과 하부구조인 경제와 정치행정시스템간의 불일치가 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현대의 사상을 하부구조는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고, 이에 정치행정도 평등 구현 등을 빌미로 계속 복잡해지고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인 일반 국민이 자본과 정치행정 권력으로부터 유리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부구조가 되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자유 중심 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평등 중심 체제가 근본적으로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은 동시에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Kim, 2021a; Kim, 2021b).

또한 상부구조인 현대 사상 간의 불일치도 있다. 현대에서는 과학기술이나 자본이 사실상의 종교가 되어 기존 전통 종교 중심 사상 질서가 무너져 있고, 종교의 신성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현대는 철학이나 도덕의 힘이 약화되어 더 이상 현대사상이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하부구조의 힘이 강해서 상부구조가 무너진 것이다. 예를 들어 하부구조인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문화엔터테인먼트 및 언론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면서, 개인이 독자적인 생각을 발전시킬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산업의 힘에 의해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의 시간을 그러한 저급한 산업에 빼앗겨서 독자적인 사색의 시간,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발전시킬 시간이 제한받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의 주도자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도자들, 언론산업의 주도자들이 기획한 프레임에 개인의 생각이 제한받는 환경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속성상 이들 주도자들은 자본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대중을 조종하기 점점 쉬워지고 있다(The School of Life, 2016).

근대 중반까지는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종교나 사상이 경제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을 결정하였다. 근대 중반이후 지금까지는 하부구조의 힘이 강하게 상부구조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상부구조의 주요 축인 종교의 힘이 쇠퇴하였고, 철학 사상의 영향이 축소되었다. 종교를 믿는 신자들의 절대수가 줄지는 않았지만 종교가 사회와 신자들에게 주는 영성적인 힘이 약화된 것이다. 그 결과로 현대 사회는 중심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이 중심가치가 되는 경향까지 있다.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많은 가치들이 자본의 힘에 밀려 쇠퇴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소중함. 평범함의 소중함, 가족 간 사랑의 소중함, 이웃에 대한 사랑의 소중함 등의 가치가 쇠퇴하고 있다. 대신 큰 성취의 중요함, 높은 지위나 명예의 중요함, 화려한 외양의 중요함, 큰 소유의 중요함 등이 개인과 사회에 중요한 가치로 부상되었다.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멋진 생활의 가치가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이들을 소유하거나 성취한 소수 개인들이 과도하게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

연예인, 자본가, 정치인, 관료 등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그것으로 권력을 획득하는데 유리하고, 또 명예를 획득하는데 유리한 구조가 현대 사회인 것이다. 권력을 많이 가지는 것도 돈을 많이 획득하는데 유리하고 명예를 가지는데 유리한 구조다. 이러한 1점 집중 극화(polarization) 현상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자본주의가 대의제 민주주의와 비대화된 관료주의 등과 결합되어 현대사회가 1점 집중 극화로 치닫고 있다. 연예산업과 스포츠산업에서 집중된 현상이 먼저 나타났고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산업에서 스타 1인이 일반 연예인이나 일반 운동선수들을 압도하여 돈과 명예를 독점하고 있는 현상이 오래전에 나타났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1점 집중 극화 현상의 심화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자본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와 관료제 시스템 등이 결합되어 1점 집중 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전통사회의 관념이었던 '돈과 명예와 권력은 함께 가질 수 없다' 는 기존 개념이 현대사회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게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의와 공정과 배려라는 사회의 기본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여러 가치들이 분산되어 있으면 한 쪽에서의 부당한 공격을 다른 쪽에서의 힘으로 방어할 수 있는데, 1점에 집중되어 있으면 방어할 수도 보호받을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정의를 수호해야할 권력집단인 검사와 판사가 권력이나 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약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제노역형의 경우, 돈이 많은 부자는 1일 노역단가가 수억원, 빈자는 1일 노역단가가 10만원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동일 성격의 1일 노동에 대해 법과 제도와 재판부는 이렇게 큰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다. 동일 죄목에 대해서도 사회적 힘을 가진 자와 못가진자 간의 차이가 클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대사회의 법과 제도가 개인들 간의 평등을 보장하려고 제정되고 발전되었지만 그 내용과 운용에 있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복잡성 증대와 1점 집중의 심화로 정의로운 사회 실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 실현이 어려운 것이다.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실현이 어려운 것이다.

요약하면, 첫째, 현대사회는 1점 집중 극화가 심화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한 집단에 집중될 수 있는 사회다. 따라서 정의와 공정이 매우 위협받을 수 있는 사회다. 둘째, 상부구조가 하부구조의 의해 위협받고 있는 사회다. 사회의 상부구조인 인간의 의식과 행복이 사회의 하부구조인 경제와 정치행정시스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피폐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산업화되고 있는 언론, 문화, 연예 산업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 개인의 자립심과 사고력을 저하시켜 개인의 생존력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자살이 증가하고 행복도가 낮아질 수 있다. 셋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초지능사회, 초연결사회가 되면서 내외부적으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다. 근대 이후 인간이 자연을 자신들의 발전에 크게 활용하면서 자연과 인간 간의 대등하였던 관계가 인간 중심으로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따라서 자연재해가 점점 심해지고, 전염병과 바이러스 창궐이 더욱 심해져서 인류 전체의 일상적 삶이 위협받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 과거에는 전쟁이 인류의 삶을 위협했지만 이제는 인간에게 핍박받은 자연이 핍박을 한 인간의 삶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3 현대사회교육의 문제 분석

이러한 현대 사회의 특성과 함의를 반영하여 현

대 사회교육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한다.

우선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그림들의 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자연과 인간 간의 균형이 깨져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힘이 전도되어 있는 구조, 즉 위 아래가 뒤집어져 있는 구조가 현대 사회이고, 개인의 평등이라는 현대적 가치가 점차 상실되며 소수 집단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라고 할 수 있다. 생활방식도 감성 중심의 디오니소스적인 삶이 이성 중심의 아폴론적 삶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균형이 깨져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우선 큰 구조 측면에서 현대 인간사회는 아래 그림 <Fig.2-2>와 같이 자연과의 상생 노력을 등한시하고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해 자연을 지배하려는 힘이 강한 사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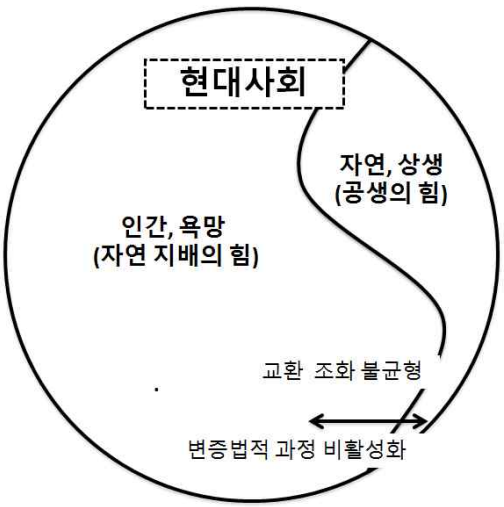

Fig.2-2. A Current Society Model 1

즉 위 그림과 같이 현대 사회는 인간의 욕망이 과도하게 발현되는 사회다. 자연을 개발하고 활용하며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회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더라도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현대를 지배하고 있고, 따라서 자연이 위축되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칭 균형성이 깨진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훼손된 자연이 언제라도 인간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사회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재해를 비롯하여 여러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한 인류사회의 위험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류사회를 구성하는 정신적 힘과 물질 및 제도적 힘의 불균형이 큰 사회다. 인류 문명사를 통해 볼 때 정신의 힘이 인류 문명을 발달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발달된 문명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정신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Fig.2-3>과 같이 경제 정치 행정 시스템이 인류의 정신 구조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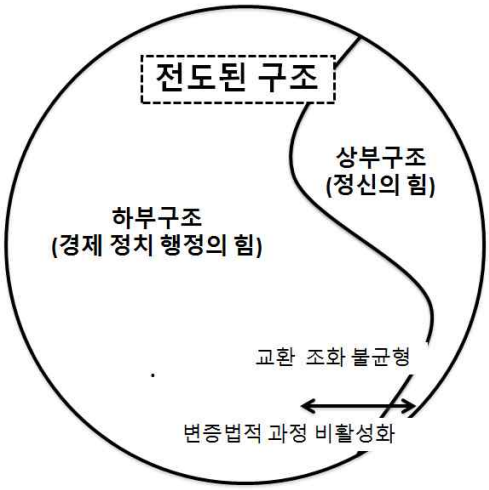

Fig.2-3. A Current Society Model 2

즉 문화산업이 개별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고, 정치 행정시스템이 인간의 삶과 행동 방식을 제약하고 있다. 개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독자적 사상과 삶의 철학을 개발하고 자신의 고유한 인생을 향유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대중화된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문화산업에 의해 강요당할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자본의 힘이 자체 증식력을 발휘하여 개인의 정신과 사회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상위 0.1% 또는 0.01%의 인간에게 자본 집중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라, 소수 거대 자본가의 악의적인 의도가 전세계 인류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도된 질서에 추가하여 아래 그림 <Fig.2-4>와 같이 개인 및 집단 상호간의 힘의 불균형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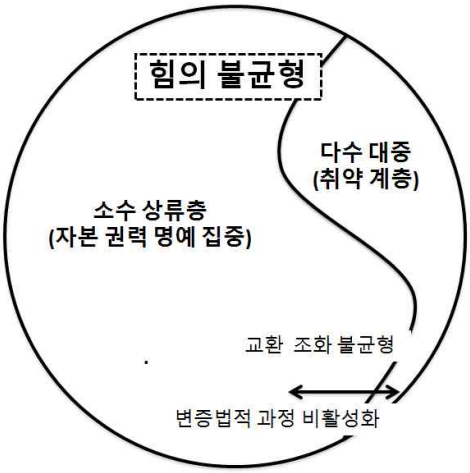

Fig.2-4. A Current Society Model 3

즉 1점 집중 극화의 심화로 인해 힘을 가진 집단 및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본과 권력과 명예가 소수 집단에 더욱 집중되고 있고, 소수 집단 간에 연대가 더욱 강해지고 있어, 여기에서 소외된 대다수 집단과 대중들은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사회이동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소수의 개인들이 큰 계층이동을 하고 있고 여전히 기회의 문은 열려 있지만, '개천 용'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개방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속성으로 인해 큰 사회계층이동 사례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는 착시 효과로 인해 사회이동성이 높아진 듯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사회이동성은 점점 낮아지고 힘의 세습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The School of Life, 2016).

또한 교통과 인터넷 등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감성 욕구 충족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생활방식도 감성과 이성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적정 조화 수준을 벗어나 있다고 분석된다. 즉 아래 그림 <Fig.2-5>와 같이 감성 중심의 디오니소스적 힘이 더 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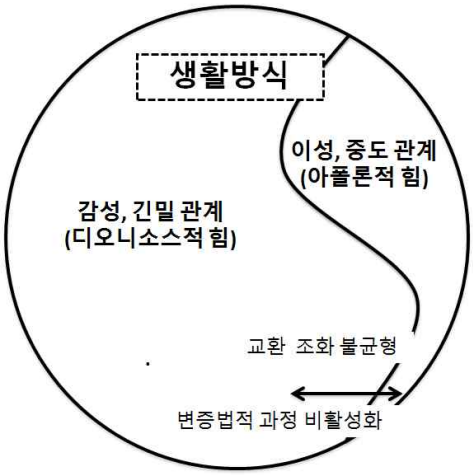

Fig.2-5. A Current Society Model 4

현대 사회에서 인류의 생활방식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매우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아폴론적 삶의 방식, 즉 이성 중심적이면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아폴론적 삶의 방식에서, 감성 중심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많이 형성하는 디오니소스적 삶의 방식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변화하였다.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로 전 세계가 온라인상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긴밀한 관계와 감성 중심 삶이 강화되었으며,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세계가 오프라인에서도 하나의 세계로서 관계성이 강화된 것이다. 관계성 강화와 함께 감성 중심 사회로의 변화가 촉진되었다.

또한 교육시스템이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변질되면서 사회의 위험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즉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자본주의의 성장을 위한 지식과 기술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교육이 크게 변화하였다. 고대 이후 근대까지 종합적 지성인을 양성하던 대학 교육이, 자본주의 성숙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용한 역량을 갖춘 개별 지식인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변화되었다. 학문의 분야가 철학이라는 1개 분야 중심에서 지난 100 - 200년간 매우 세분화되어 대학의 전공 학문 분야로 분화되었다. 따라서 대학교육은 종합 지성인을 양성하는 교육에서 멀어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변화된 것이다. 일부 대학이 과거와 같이 지성인 교양인 양성 교육을 하고 있지만, 매우 소수의 대학들일 뿐이고, 이들 대학의 졸업생들마저도 졸업후 기능인이 되기 위해 법대나 의대 등의 기술 지식 교육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류의 삶에서 대학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비중이 커졌다. 중등교육도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전락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등교육과정에서 사회적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된 것이다. 대학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과 유아교육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권마다 또는 국가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다. 대학입학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국가에서는(독일 등 유럽) 중등교육에서 기술교육을 하여 사회로 진출시키며, 사회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공통 사상과 도덕성 교육을 강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통제시스템은 현대정신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강요된 행복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Lamprecht, 1992; Skirbekk and Gilje, 2016; The School of Life, 2016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분석).

이와 같은 전반적인 분석에 의해 현대 사회의 교육시스템은 아래 그림 <Fig.2-6>과 같이 지식 기술 교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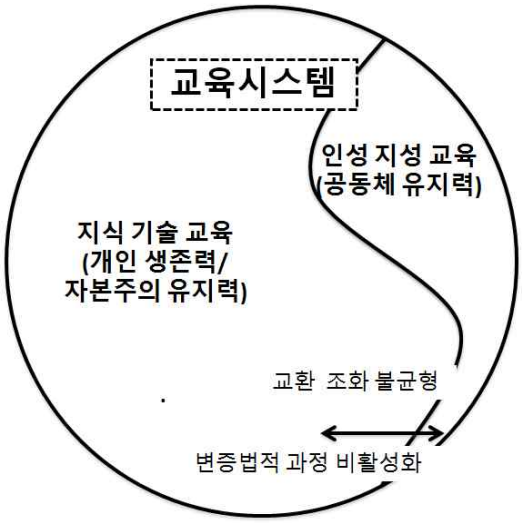

Fig.2-6. A Current Society Model 5

즉 사회에서 개인의 생존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사회 공동체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인성과 지성 교육에는 소홀한 것이 현대 교육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건전한 인간,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있는 지성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차원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가 현대 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첫째 자연재해와 바이러스와 전염병 등에 취약해진 인류사회가 되었

다. 언제 큰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높은 위기사회가 되었다. 인류가 큰 시련을 겪게 되거나 멸망할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다. 사회 계층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연대의식이 약해지고 있다. 공동체의 가치가 붕괴되고 있고 개인 중심 문화가 강화되고 있다. 성숙된 개인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소수 집단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 사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힘에서 소외된 다수 대중들이 공동체를 버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셋째, 개인의 행복도가 낮아지고 있다. 말초적 만족감에 익숙해진 개인들은 진정한 삶의 행복과 멀어지고 있다. 계층이동을 못하는 좌절감도 커지고 사회 불평등에 대한 불만도 커져서 행복도가 낮아지고 있다. 1점 집중 극화로 인해 사회에서 실패했다고 인식되는 개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넷째, 교육시스템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동되기 보다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류사회의 문제는 향후에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후속세대들이 건전한 상식으로 사회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물리학의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현대 사회시스템에도 적용되어 사회의 무질서도와 위험도가 계속 증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제와, 문제들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에 대한 위험에 대한 해결대안을 도출하였다. 인류의 삶을 구원하고, 인류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현대 개인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디자인하였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전체를 포함하는 거시적 시스템을 디자인하였다. 거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아래 제3장에서 제시한다. 우선 현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새로운 시스템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충분조건을 갖춘 디자인이어야 한다.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시공간인 우주의 운행 원리와 인류 공통사상에 부합하는 디자인이 충분조건을 갖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주의 영속성 원리를 인류사회가 받아들이면 우주처럼 인류도 오랫동안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주의 원리는 우주의 핵심 구성원인 생명체의 원리와, 우주의 고등 생명인 인간이 도출해낸 진리체계를 포함한 공통원리를 의미한다. 아래 제3장에서 이들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의 공리를 제시한다.

3.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 요건

새로운 시스템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며, 또한 인류사회의 기본운용 시스템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위상을 가지려면 인류사회의 공통원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3.1 문제해결 필요요건

새로운 디자인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제2장에서의 문제점 분석에 의해 먼저 자연과 인간 간의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UN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제시하였고, 생태학이나 환경운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인간의 이기심이나 욕망을 통제하는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여 획득한 많은 편리한 문명의 혜택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스템의 전환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동시 개선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하부구조의 경제시스템과 정치행

정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상부구조인 인류사회의 정신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정신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에 대한 적절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주의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자연과 상생하는 경제시스템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치행정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 개선과 관료주의 행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Kim, 2021a; Kim, 2021b). 자연재해와 바이러스와 전염병 등에 취약해진 인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거시적 디자인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제2장에서 문제로 제기된 하부구조와 상부구조간의 전도된 힘의 구조를 바로잡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하부구조의 힘이 과도하게 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상부구조의 힘을 강하게 하거나 하부구조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상부구조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이 중요하다. 유아교육, 청소년교육, 대학교육 등이 새로운 구조를 필요로 한다. 종교나 철학 등의 정신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하부구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이나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져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면 하부구조의 힘이 약해진다.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면 하부구조의 힘이 약화된다.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Fig.2-4>에 제시된 개인 및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 개선도 필요하다. 다수 대중의 힘이 약해지고, 소수 지배층의 힘이 강해지는 불균형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사회계층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연대가 약해지는 원인이 되는 이 불균형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가치가 붕괴되고 개인 중심 문화가 강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성숙한 개인들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해야 하고, 집단 간의 힘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림 <Fig.2-5>와 같이 디오니소스적 방식의 감성 중심 삶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삶의 양식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 사회의 여러분야가 개인의 말초적 만족감에 소구하고 있어, 개인들이 삶의 이성적 주체성을 상실하고, 진정한 삶의 행복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성의 가치와 비중을 회복하고 진정한 삶의 행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인류사회가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도 많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것이므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회 간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Fig.2-6>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인성과 지성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지식과 기술 교육에 과도하게 치우쳐진 현대의 교육시스템은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지성이 결여된 지식과 기술은 인류사회를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다. 지식과 기술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전한 목적이 설정된 후 기술과 지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사회를 하나의 연결된 사회로 만들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대기업의 플랫폼에 전체 인류가 접속되어 있다. 거의 모든 개인의 활동이나 생각이 거대 네트워크 플랫폼에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류의 삶을 인위적으로 감시하고 조종할 수 있는 빅브라더의 탄생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핵무기와 같이 인류사회를 쉽게 파괴할 수 있는 무기들이 언제라도 사용되어 인류사회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노동에서 인간의 역할과 사회에서 인간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다. 과학기술의 과도한 힘과 인간의 과학기술에의 의존성 증대가 인류사회를 파멸로 이끌어갈 위험이 큰 사회이므로,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즉 과학기술의 활용이 인류사회에 주는 편리함과 혜택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과학기술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교육시스템 디자인이 필요하다.

운(運)의 작용에 대한 철학을 개선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20세기 이후 자연세계의 불확실성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서 인간세계의 불확실성과 운의 작용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운의 작용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행운의 작용으로 인해 적은 노력으로 또는 노력이 없이도 큰 성공을 하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한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결과를 중심으로 인식하므로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한 사회로 전락하게 되고, 실패한 개인은 사회의 낙오자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무작위적인 운의 작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디자인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종교가 내세(來世) 개념을 활용하여 운의 작용을 시간 차원에서 상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의 영성적 힘이 약화되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종교의 영성을 회복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사회시스템 내에서 운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즉 결과 중심 사상이 아닌 과정 중심 사상을 보편화하여 운의 힘을 축소시키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과정 중심 사상과 과정중심 법제도를 새로운 사회운영시스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경제와 산업의 발전이 인류사회에 가져다주는 많은 혜택들과 함께 이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문명화의 선과 악, 작용과 부작용은 상대적일 수 있다. 사회 사상적 조건에 따라 필요한 문명화의 수준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문명의 편리함과 자연의 편안함을 두 대립자로 두고 상호 치열한 균형을 유지하는 인간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온오프라인 네트워킹산업, 국가를 비롯한 단위사회의 규모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도 필요하다. 노자식의 소국과민(Lao-Tzu, 1982)이 주는 많은 장점을 뒤로 하고, 현대 사회는 대국다민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큰나라 많은 국민이 중심인 사회다. 따라서 관료제가 필요하고, 대의제 정치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나 권력기관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게 되고, 국민은 매우 적은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국가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이나 자본가의 힘도 커졌고,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그 힘이 더욱 커졌다. 커진 힘을 가진 통치자나 기업(자본가)이 비이성적이거나 이기적일 경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 현대 사회다. 이들이 법제도, 행정, 교육, 문화산업, 언론 등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디자인은 필요하다. 변하면서 흘러감이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선 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

3.2 세상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세상 공통원리와의 부합성, 현대 서비스철학에의 충실성 등이 요구된다.

세상을 움직이는 공통 원리는 인류대표사상, 우주론, 생명론, 예술론 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우주원리는 천체의 운행원리인 매크로 원리와 원자의 운행원리인 마이크로 원리로 나눌 수 있다. 우주는 철저한 균형원리로 운행되고 있다. 우주임계밀도(critical density)는 중력으로 우주의 팽창을 멈추게 하는 밀도인데, 이 임계밀도가 팽창과 축소를 결정하는 임계점 부근에서 철저한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다. 우주론에서 우주가 열린 우주가 될 것인지 닫힌 우주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 주

는 우주의 밀도는 $10^{-29}g/cm^3$ 정도(임계밀도)인데, 오메가(=우주의 밀도 / 우주의 임계밀도)가 1보다 작으면 열린 우주가 되어 팽창하다가 얼어붙게 되고, 오메가 값이 1보다 크면 닫힌 우주가 되어 수축하여 빅크런치가 일어나며, 오메가 값이 1에 매우 가까운 값이면 안정적 팽창을 한다. 우주의 오메가 값은 1에 매우 가까운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안정적 팽창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Hawking, 1998). 작용반작용법칙도 우주 운행의 균형원리를 설명한다. 가해지는 힘과 반대방향으로 동일한 힘이 항상 작용한다는 이 원리는 모든 것의 균형성을 입증하는 중요 원리다. 또한 이러한 원리들은 두 힘 간의 조화와 대칭원리가 된다. 전체 시스템에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원리이며, 좌우 상하 전후의 균형을 통해 대칭을 이루는 원리이기도 하다. 생명의 원리도 대칭성을 기본으로 한다. 인체는 대칭성 균형성이 건강의 척도다. 대칭성과 조화성을 잃으면 건강이 위협받는 것이 기본적 생명원리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우주의 원리, 생명의 원리는 대칭성과 균형성 조화성이 기본원리이며, 이 원리를 지킬 때 우주와 생명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Kim, 2019a).

인도-> 이집트-> 지중해 -> 그리스 -> 로마 -> 유럽-> 세계로 전파된 주요 사상은 플라톤주의와 형이상학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Held, 2007; Lamprecht, 1992). 즉 세계는 이성적인 세계와 현상적인 현실세계로 이원화되어 있고, 현실세계는 이상적인 이성의 구현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주의 이상적인 원리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내재되어 있다는 고대 인도의 베다와 우파니샤드 사상이 피타고라스, 플라톤, 칸트, 헤겔, 화이트헤드, 들뢰즈 등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사상은 현상세계의 무작위성과 비이성성에 기초하고 있다(Lao-Tzu, 1982). 중국의 주역부터 시작하여 '변화'를 사상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동양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역 이후 노자, 공자, 순자, 한비자, 주자 등이 거의 모두 현실 세계의 변화와 현실의 긍정에 바탕을 두고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에는 바가바드기타나 초기 불교 사상에 이어 용수의 중론이나 세친의 유식사상까지 인간 삶과 인식의 근본 이슈를 탐구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서양 형이상학의 발전과 중국 사상의 형이상학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동서양 사상의 공통 구조를 보면, 피타고라스의 코스모스론 등 서양 고대 사상부터 근대 현대의 헤겔, 니체, 들뢰즈의 이론까지, 그리고 중국 주역의 태극론과 인도의 범아일여 아트만 사상부터 현대물리학의 양자이론 상보성원리까지 모두 대칭성과 음양대대 상보성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Kim, 2019a).

요약하면, 창조의 수 2로 표현되는 대대원리, 상반상성, 상보성, 비유비무 원리가 진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태극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진리는 태극구조로 표현할 수 있으며, 태극을 여러 개로 구성하여 전체 진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 진리가 반영된 현대 서비스시대의 사회관은 아래와 같다.

대립존재 및 대립개념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과 동태적 균형이 궁극의 도(道)가 된다. 대립 존재 및 대립 개념 간의 이해관계 현장이 세상의 모습이고 인류 삶의 냉엄한 현실이다. 인간 몸의 세포도 나고 죽고를 치열하게 균형 있게 반복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이듯이, 세상의 대립존재와 대립개념도 철저한 상호 균형원리로 운영될 때 지속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관의 대립되는 두 힘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힘과 개인이 자유를 추구하려는 힘이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힘, 사회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힘이 전체로서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힘이다. 전체 사회 관점의 선good과 악evil이 정의되고 선을 유지하고 악을 단죄하는 힘이 중심이 된다. 한편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좋은good 것과 나쁜bad것이 있다. 좋은 것을 많이 하고, 나쁜

것을 적게 하려는 힘이 있는 것이다. 개인들의 자유로운 행복추구의 힘과 전체사회 안정유지의 힘이 임계점 부근에서 균형있게 조화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다. 서비스시대 서비스철학의 사회관은 두 힘이 균형을 이루는 조화사회 모델이며, 시간 공간 차원에서 변증법적 사이클이 매우 짧고 빨라서 사회 변동 혼란이 최소화되는 모델이다. 이를 도시하면 아래 그림 <Fig. 3-1>과 같이 태극모델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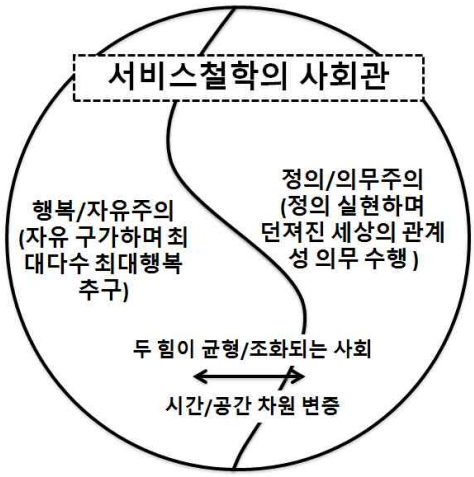

Fig. 3-1. The Society Perspective of Service Philosophy

이와 같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그리고 자연세계의 법칙들에 근거하여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공리를 아래에 제시한다.

3.3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의 공리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은 불변의 공리(axiom)에 기반하여 구축된다. 인류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에 의한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의 공리는 Kim(2021b)의 연구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공리 1]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공간상에서 연결되어 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한다. 현대 과학기술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사회도 서비스 네트워크 사회가 되면서 위 문장은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Lamprecht, 1992; Yang, 2012).

[공리 2] 모든 것은 대립자가 있다. 사회교육시스템의 주체와 객체들에도 제반 대립자가 있다.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하며, 인류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전제이므로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Lao-Tzu, 1982).

[공리(axiom) 3] 모든 것은 변한다. 사회교육시스템의 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한다. 주역이나 헤라클레이토스의 고대사상부터 포스트모더니즘 현대사상까지 변치 않는 진리이므로, 사회교육에서도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Kim, 2019a; Kim, 2019b; Kim, 2019c; Kim, 2019d; Kim, 2017).

[공리(axiom) 4] 변화에는 물리학 법칙이 작용한다. 즉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한다.

자연세계의 법칙에 따라 대립자간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즉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균형점을 한동안 벗어난 후에야 반대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 또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한번 상태가 전환되어 속도가 붙으면 가속도가 작용하여 크게 균형점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큰 힘이 필요할 수 있다.

[공리 5] 인간의 내재적 욕망은 무한하다. 인간은 외부에서 제약을 가하지 않는 한 욕망 추구를 멈추지 않는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므로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기 어렵고, 인간의 정신은 무한을 추구하므로 욕망에 대해서도 한계를 가지지 않는다. 다만 윤리나 도덕, 법과 제도 등의 외부적 힘에 의해 욕망추구가 제한된다(Lao-Tzu, 1982).

[공리 6] 인간사회의 무질서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외부의 힘이 가해져야 무질서도가 감소할 수 있다.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고립된 계에서는 엔트로피(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한다. 개방된 계에서는 엔트로피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어떤 계의 엔트로피를 줄이려면, 외부에서 그 계에 물리적인 '일(work)'을 해 줘야만 한다. 예를 들어, 어지러워진 책상을 정리하려면 우리는 힘을 들여 일해야만 한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0). 사회교육시스템에서도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무질서도는 계속 증가한다.

이와 같은 공리와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요건에 의해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의 구조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이 세상공통원리인 서비스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으로 명명하였다.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의 구조를 아래 제4장에서 제시한다.

4.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의 구조와 운용 모델

서비스주의는 세상공통원리인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모든 이념을 의미한다.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은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두고 디자인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이러한 사회교육시스템의 구조(화쟁태극구조), 운용모델(변증법적 모델), 구현방안(인공지능기반 자동전환모델)을 제시한다.

서비스주의는 대칭균형성이 중심인 모델이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상식대로 직불제 중심 시스템이다. 즉 적정 대가를 즉시 지불하고 혜택을 획득하는 시스템이다. 자유의 대가, 평등의 대가, 민주주의의 대가, 편리의 대가, 효율의 대가, 연결의 대가, 성장의 대가, 행운과 불운의 대가 등을 직불하는 시스템이 서비스주의의 원칙이다. 그러나, 대가 산정이 불가능하여 직불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후불을 병행한다. 대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불하지 않고 지내다가, 대가를 확인하고 지불하는 후불제도 있고, 대가가 작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불한 후, 나중에 대가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후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큰 금액을 직불하였는데, 나중에 대가가 작아 환불 요구해야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소급하여 환불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4.1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 구조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은 앞서 제시된 공리에 의해 그 구조가 구축된다. [공리 2]에 의해 사회교육시스템의 각 주체와 객체들에는 두 대립자가 존재한다. [공리 1]에 의해 이 두 대립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립자 각각은 상대측의 강점을 사용하여 해결해야하는 자체적 문제를 내부에 가지고 있다. 즉 서로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공리 3]에 의해 두 대립자들의 상태는

계속 변화해간다. 내부의 문제가 심화되면 문제들이 외부로 드러나는 방향으로 변화해간다. [공리 4] 관성의 법칙에 의해 변화는 균형점을 넘어가며 계속 진행된다. 자체 모순과 문제들이 과도하게 심화되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된다. [공리 5]와 [공리 6]에 의해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 문제점을 해결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또한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은 서비스철학에 기반하여 그 구조가 구축된다. 두 대립자들간의 철저한 대칭 균형이 기반이 되며, 두 대립자들이 서로 대립면을 공유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며 상호 윈윈하는 모델이다. 두 힘이 임계점 부근에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과정이 시공간에서 변증법적으로 진행된다. 50:50의 철저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우므로 시소처럼 오르내리며 균형을 잡아가는 동태적 균형 태극 모델이다. 대립자 각각이 자신의 입장에 모순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고, 따라서 반대쪽 입장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모델이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주의는 화쟁(和諍) 모델이다. 두 대립자가 서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의 서로 다른 측면임을 인지하고 상호 화합과 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화(和)와 쟁(諍)을 번갈아 사용하는 모델이다.

사회에서는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고,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규범의 준수도 중요하다. 즉 아래 태극 그림 <Fig. 4-1>과 같이 두 개의 대립자가 대립면을 공유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서비스주의 사회철학이다.

한편 서비스주의의 사회인간은 이성과 비이성이 혼재되어 있는 인간형이다. 질서와 무질서, 이기적 속성과 이타적 속성이 한 인간 내에 혼재되어 있는 모델이다. 인간은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이기심이 과도하게 발현되는 존재이고, 적절한 질서유지 통제가 없으면 무질서할 수 있는 존재이고, 비이성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이성적 행동을 하기 어려운 인간형이 서비스주의 사회인간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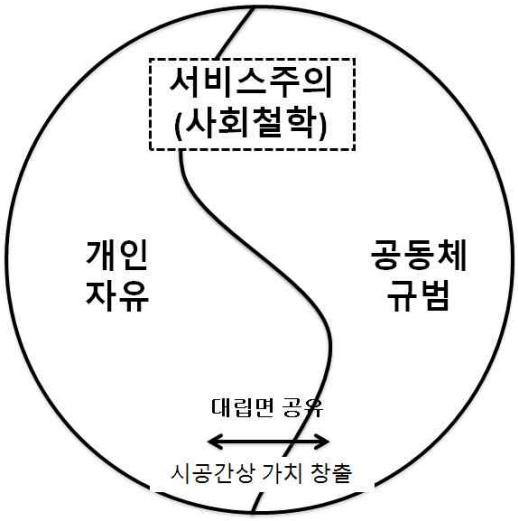

Fig. 4-1 The Servicism on Society Philosophy

이러한 사회인간에 대한 통제노력 수준을 낮추는데 교육시스템이 기여할 수 있으며, 종교 등의 정신시스템도 통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주의하의 인간형은 아래 그림 <Fig. 4-2>와 같은 화쟁태극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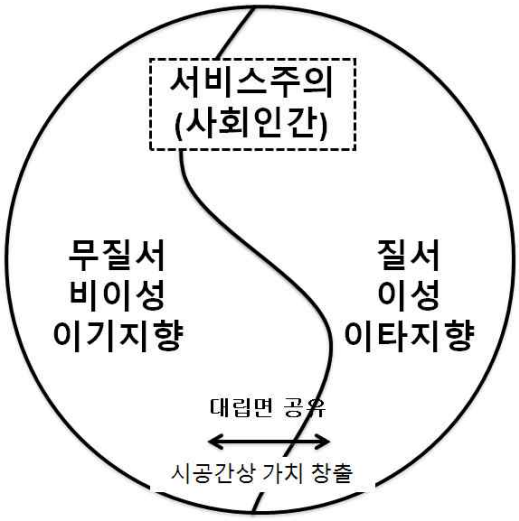

Fig. 4-2 The Servicism on Homo Society

또한 서비스주의의 사회발전모델은 진취성과 보수성이 균형을 이룬 모델이다. 적극적으로 문명의 발전을 추구하며 인류 생활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힘과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다음 상태를 생각하는 보수적인 힘이 균형을 이룬 모델이다. 전자는 과학기술 발전을 추구하고 개발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성장과 편리성 증대를 추진하는 힘이다. 후자는 과학기술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나 환경 파괴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추진하려는 힘이다. 서비스주의 사회발전 모델은 이 두 힘이 시공간상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룬 아래 그림 <Fig. 4-3>과 같은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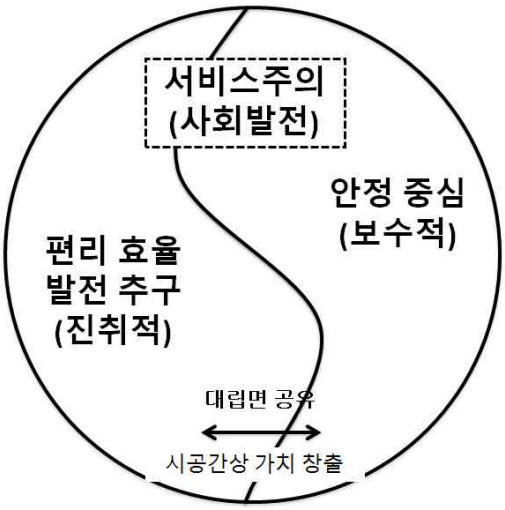

Fig. 4-3 The Servicism on Society Development

서비스주의 사회통제시스템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임형 후불제 시스템과 공동체의 유지를 중시하는 통제형 선불제 시스템이 균형을 이룬 모델이다. 후불제 시스템은 사회 및 기술 혁신이 촉진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작용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크게 치루어야 하는 시스템이다. 선불제 시스템은 공동체 유지 입장에서 통제를 선행하므로 혁신은 촉진되기 어렵지만 추후에 발생할 부작용은 최소화되는 시스템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혁신과 발전이라는 기회비용을 미리 지불한 것이므로 선불제 시스템이라고 명명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사회는 후불제 시스템 채택 사회이고, 부탄 등의 국가는 선불제 시스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다수도 후불제 사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주의 사회통제시스템 모델은 이 두 힘이 팽팽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아래 그림 <Fig. 4-4> 와 같은 화쟁태극 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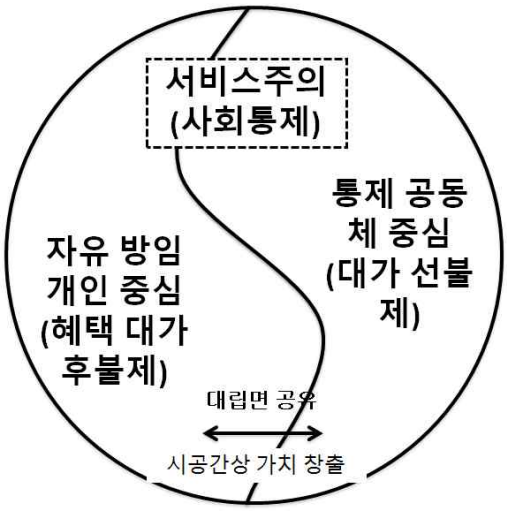

Fig. 4-4 The Servicism on Society Control

결론적으로 서비스주의 사회 시스템은 직불제와 후불제를 병행하는 시스템이다. 과학기술의 활용이나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대해서는 후불제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후불제는 추후에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심지어 인류사회 전체의 파멸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선불제는 당장의 이익에 민감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즉시 대가를 지불하는 직불제가 후불제의 대립자가 될 수 있다. 즉시 대가 지불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사용하고, 대가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후불제를 사용한다. 대가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추후에 판단되

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는 시스템이다. 서비스주의 사회시스템은 이와 같이 후불제와 직불제가 각각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적용되는 시스템이며, 아래 그림 <Fig. 4-5>와 같은 시공간 태극 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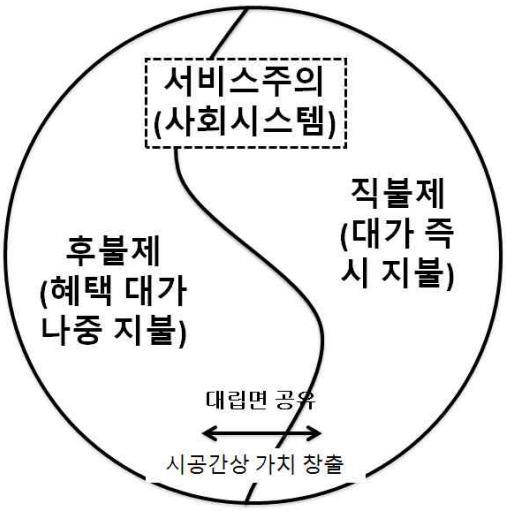

Fig. 4-5 The Servicism on Society System

이와 같은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이 운용되는 모델은 아래와 같다.

4.2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 운용모델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은 앞서 제시한 두 대립자들의 상호 작용이 시공간상에서 변증법적으로 진행되는 모델이다. 즉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이기심이 추구되는 것을 방임하면서 무질서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공동체를 위한 통제를 강하게 하여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모델이다. 한편 통제가 강하게 오래 지속되면 질서는 유지되지만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 피로도가 높아진다. 이 시점에서 적정 수준의 자유 방임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모델이다. 무질서 및 자유와 통제가 서로 과도해지지 않도록 대립하면서 보완하는 힘을 발휘한다. 항상 균형과 대칭을 향해서 힘이 작용하도록 한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아래 <Fig.4-6>과 같다. 즉 개인의 자유와 후불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시작한 사회교육시스템의 경우, 자유가 확대되고 개인들의 이기적 활동이 증대되면서, 점차 공동체의 개인에 대한 통제 필요성과 직불제(선불제 포함) 시스템 요구가 증대되는 1/4 분면 사이클에서 시작한다. [공리 5]와 [공리 6]에 의해 개인의 이기심 추구가 증대되고 사회교육시스템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공리 3]의 변화 원리와 [공리 4]의 반작용 원리 및 [공리 6]에 의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대쪽의 힘이 작용한다. 그러나 [공리 4] 관성의 법칙에 의해 균형점을 상당히 벗어난 시점에서 균형 회복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다. 공동체 통제가 중심이 된 사회교육시스템으로 이전되어 상당기간 진행하는 2/4분면 사이클로 이동한다. 2/4분면에서는 [공리 4] 관성의 법칙에 의해 공동체 중심성이 계속 강화되고 개인의 권리가 위축된다. 공동체의 개인에 대한 통제가 과도하여 적절한 균형을 벗어난 시점이 되면 다시 [공리 3]과 [공리 6]에 의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대쪽의 힘이 작용한다. 이전 사이클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시 개인의 자유와 후불제 모델을 회복하는 3/4분면 사이클로 진행한다. 다시 [공리 5]와 [공리 6]에 의해 개인의 자유로운 이기심 추구가 증대되고 사회교육시스템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공리 3]의 변화와 [공리 4]의 반작용의 힘, 그리고 [공리 6]에 의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대쪽의 힘이 작용한다. 다시 [공리 4] 관성의 법칙에 의해 균형점을 상당히 벗어난 시점까지 진행된 후에야 균형 회복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다. 공동체와 직불제(선불제)가 중심이 된 4/4분면 사이클로 이동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공리 3]과 [공리 6]에 의해 사회교육 상황이 변하면 다시 개인의 자유 확대와 후불제시스템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러면 다시 1/4 분면 사이클로 이동하여 다음 나선형 사이클을 진행한다.

현대 사회교육시스템에서는 두 대립자인 개인과 공동체의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경우는 거의 없다. 주역의 괘로 상황을 표현하면 개인의 자유 확대와 후불제시스템이 절대 우위인 건괘(3개 효 모두가 양(-)효)인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공동체의 통제와 직불제시스템이 절대 우위인 곤괘(3개 효 모두가 음(--)효)인 경우도 거의 없다. 대다수의 경우가 리괘(내부가 음효, 외부 2개가 양효)이거나, 감괘(내부가 양효, 외부 2개가 음효)인 경우다. 1/4 분면과 3/4 분면은 개인의 자유 확대와 후불제시스템 중심에서 공동체의 통제와 직불제시스템 중심으로 전환되는 사이클이고, 2/4 분면과 4/4 분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전되는 사이클이다

Fig. 4-6 The Servicism Operation Model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3개의 차원을 더하여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 운용모델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Fig.4-7>과 같다. 즉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은 변화되는 시공간상에서 인간의 의지를 반영하며 변증법적 모델로 운용된다. 이 운용모델에서는 5개의 힘이 작용한다. 개인의 자유와 후불제시스템을 선호하는 힘, 공동체의 통제와 직불제시스템을 선호하는 힘, 시간 축의 힘, 공간 축의 힘, 인간의지 축의 힘 등 5개의 힘이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는 모델이다. 세상공통원리에 의하여 이 5차원모델은 확대와 수축을 번갈아가며 진행한다. 즉 어느 한 방향으로 발전되다가 한계에 이르면 모순을 해결하는 반대방향으로 선회한다. 서비스주의의 기반 철학에 의해 반대 방향으로의 전환을 미리 예측하고 전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용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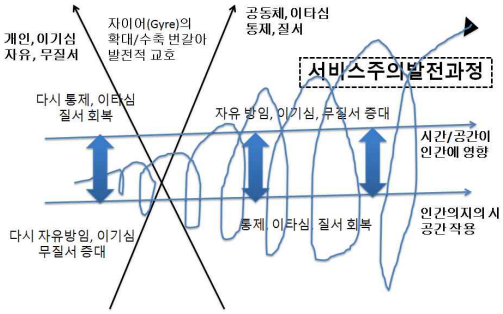

Fig. 4-7 The Servicism Operation Model on Time Space People Dimension

선행연구(Kim, 2021b)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5차원 모델은 확정적인 해답을 가지고 운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부 불확실성을 내포한 근사한 솔루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 모델 구현방안을 제시한다.

4.3 새로운 사회교육시스템 구현방안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은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 스스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후불제 시스템과 직불제(선불제) 시스템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인간의 이기심이 직불제 시스템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쉽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불확실성이 가미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불확실성을 내포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인간의 이기심과 비이성성을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Kim(2021b)이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구현방안에

서 제시한 자연대리자로서의 인공지능 활용시스템을 사회교육시스템 구현에도 활용한다. 즉 사회교육시스템 통제 지위를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도록 한다. 현재는 인간이 시스템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인간의 여러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대리자와 통제 권한을 공유한다. 자연의 원리를 내장한 인공지능을 자연대리자로 활용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Fig.4-8>과 같이 자연대리자로서 구현된 인공지능과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들이 사회교육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공유하며 변증법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다(Kim, 2021b).

자연원리를 대리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은 대칭성 조화성 불확실성 등의 자연원리에 따라 설계된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 개념도 반영하여 시스템이 설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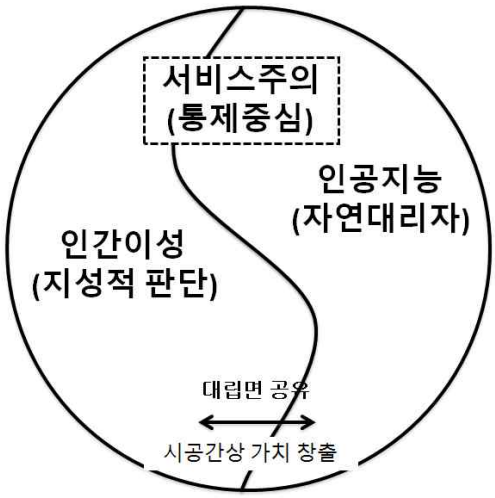

Fig. 4-8 The Servicism Control Model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정수준으로 자연의 원리를 수용할 때, 지속가능한 사회교육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 인간의 비이성성과 이기심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인류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토의 및 과제

본 연구는 인류사회의 행복도와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사회교육시스템 개선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철학적 모델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교육시스템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상호 배려하는 사회, 개인이 행복한 사회 등이 지속가능한 사회일 것이다. 또한 계층이동성이 높으며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의 대가와 평등의 대가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시스템을 논의하였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과도한 경쟁시스템의 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수직적 사회구조 촉진 문제를 논의하였다. 사회적연대와 계층이동성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해결 대안으로 서비스주의를 도출하였다. 서비스주의는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사회관, 역사관, 인간관을 토대로 한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통제라는 두 대립자가 대칭균형을 이루는 시스템, 사회 계층 상승 경쟁과 사회적 연대가 대칭을 이루고,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서비스주의는 동태적 균형 태극 모델이다. 즉 시간과 공간이 개입된다. 특정 시기 또는 특정 공간에서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우세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이 변해감에 따라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치열한 균형을 유지해가는 모델이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이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이다. 중도와 절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며,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향후 본 모델을 구체화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자연대리자로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Kim, Hyunsoo (2021a),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1, No.2, Jun. 2021, pp.1-19 (김현수(2021),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 구조와 운용 연구, *서비스연구,* 제11권 제2호, pp.1-19)
2. Kim, Hyunsoo (2021b),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Economy System,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1, No.1, Mar. 2021, pp.1-20 (김현수(2021),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구조와 운용 연구, *서비스연구,* 제11권 제1호, pp.1-20)
3. Kim, Hyunsoo (2020a), A Study on the New Management Technology Model in Service Economy Era,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0, No.4, Dec. 2020, pp.101-125 (김현수(2020a), 서비스경제시대의 경영기술 연구, *서비스연구,* 제10권 제4호, pp.101-125)
4. Kim, Hyunsoo (2020b), A Study on the New Manager Model in Service Economy Era,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0, No.3, Sept. 2020, pp.1-22 (김현수(2020b), 서비스경제시대의 신경영자 모델, *서비스연구,* 제10권 제3호, pp.1-22)
5. Kim, Hyunsoo (2020c), A Study on the Service Management Model as the New Management,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0, No.2, June 2020, pp.91-108 (김현수(2020c), 신경영으로서의 현대 서비스경영 모델, *서비스연구,* 제10권 제2호, pp.91-108)
6. Kim, Hyunsoo (2020d), A Study on the Framework of New Management,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0, No.1, Mar. 2020, pp.1-15 (김현수(2020d), 신경영학 프레임워크 연구, *서비스연구,* 제10권 제1호, pp.1-15)
7. Kim, Hyunsoo (2019a), A Study on Service Philosophy for New Economy and Societ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4, Dec. 2019, pp.1-17 (김현수(2019a), 신경제사회 중심사상으로서의 서비스철학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4호, pp.1-17)
8. Kim, Hyunsoo (2019b),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Western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3, Sept. 2019, pp.1-16 (김현수(2019b), 서양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3호, pp.1-16)
9. Kim, Hyunsoo (2019c),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instream Oriental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2, June 2019, pp.1-15 (김현수(2019c), 동양주류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2호, pp.1-15)
10. Kim, Hyunsoo (2019d),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Korean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1, March 2019, pp.1-16 (김현수(2019d), 한국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1호, pp.1-16)
11. Kim, Hyunsoo (2018) New Management of Management, Kookmin University Press, (김현수(2018), 경영의 신경영, 국민대학교 출판부)
12. Kim, Hyunsoo (2017), A Study on Korean Traditional Philosophy as the Service Economy Philosoph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7, No.3, Sept. 2017, pp.105-118 (김현수(2017), 서비스경제철학으로서의 한국고유사상 정합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7권 제3호, pp.105-118)
13. Kim, Hyunsoo(2016), A Study on Accelerating

Service Economy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6, No.3, Sept. 2016, pp.15-28 (김현수(2016), 4차 산업혁명의 서비스경제화 촉진 연구, *서비스연구,* 제6권 제3호, pp. 15-28)

14. Lamprecht, S.P.(1992),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Kim Taegil, etc. Tr., Eulyou Cultureg Co. (렘프레히트(1992), 서양철학사, 김태길 등 역, 을유문화사)
15. Lao-Tzu(1982), *Tao Te Ching;* Ki Keun Chang Tr., Samsung Publishing Co. (노자(1982), 도덕경, 장기근 역, 삼성출판사)
16. NAVER Knowledge Encyclopedia(2020),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Physics Stroll, Jongpil Lee (네이버 지식백과(2020), 열역학 제2법칙, 물리산책, 이종필).
17. Skirbekk, G. and N. Gilje(2016), A History of Western Thought, Yoon, Hyungsik Tr., Ihaksa (시르베크 & 길리에(2016), 서양철학사, 윤형식 역, 이학사)
18. The School of Life(2016), Kim & Oh Tr., Great Thinkers, Wiseberry (인생학교(2016), 김한영 & 오윤성 옮김, 위대한사상가, 와이즈베리)
19. Yang, Haerim(2012),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Jipmundang (양해림(2012), 서양철학사, 집문당)

Kim, Hyun Soo(hskim@kookmin.ac.kr)

Hyunsoo Kim is a Professor of Service Management at Kookmin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majored in nuclear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isty and acquired Master's degree in management science from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ceived his Ph.D. degree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with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Currently he serves as the chairman of the Society of Service Science, and the chairman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ervice Industry as well as the chairperson of Service Korea Initiative. Based on those experiences and knowledge on Service industry and academia, he devotes himself to the researches on Service Science and Service innovation.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Society and Education System

Hyunsoo Kim*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 society and education system model that will improve the happiness and sustainability of human society. An ideological model for making human society a happy society was derived, and a society and education system structure and operation model based on this was presented. A fair society, a justice society, a mutually considerate society, and a society where individuals are happy are the conditions for a sustainable society. After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freedom and equality pursued by capitalism and democracy, which are currently adopted by most societies, an improvement model was derived from the perspective of a sustainable society. The cost of freedom and equality were analyzed and a new alternative system was discussed. The social solidarity and class mobility issues were discussed together and servicism was deriv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It is a system in which two opposing opponents of individual freedom and social norms form a symmetrical balance, and material and spiritual values are balanced. Servicism is a dynamic balance model. That is, the dimensions of time and space are involved. It is a model that maintains a thorough balance through a dialectical process as time and space change, and one value can dominate the other at a specific time or space. The service-oriented society and educ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simultaneously pursues the goals of individual happi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social community.

Keywords: Servicism, Justice Society, Fair Society, Social Mobility, Service Philosophy, Education System

*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hskim@kookmin.ac.kr